



이거 아니냐? 맞음으로 쓰여진 말이 있다.
홍남배였다. 동양대학 학생회가 건설되지 못해
그 동안 작고 학생회장들이 모교에
단대 행사를 진행해왔다.
그런데 학교당국은 학생회가 없으니
행사준비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해.
과연 이게 맞은가?
역지도 맞아야 하는 걸까?



중국 WTO 가입의 계속될수록 피해를
지는 농민들, 우리도 이 예외에 아니겠나

정현준 사진, 정현준원장 지상 등으로
무엇이 '한국군' 변화가 있느냐? 나라를
위기사태까지 오게 한
이런 사건의 원인은 무엇이고
앞선 변화가 있었는지 어떤 생각을
지니고 있는지 일괄 취재해 보았다.



문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이들의 첫 번째
나들이, 장미영화제 를 다녀왔습니다.

통일·한국어·러시아 영화들
주제는 열린 대학원 학생들.
다음주까지 이어질 이 행사로
우리에게 가를 학생회가 '통일' 하였습니다.
학생회 내용을 보도합니다.



'일본...광명역에 대해' 4월 25일 '주간동
가' 김경 기자의 광명역 방문기

“죽벌체제로 회귀할 가능성 있다”

이숙경 전이사장, 편지 통해 김씨 종친회의 재단개입 의사 밝혀

98년 재단투쟁 후 물러난 이숙경 전이사장이
지난 30일(월) 교수, 직원, 대학원 총학생회 및
안 배움터 총학생회와 각각 편지를 송달했다.
이에 구성원들은 이숙경 전이사장이 98년 이후
최초로 자신의 의사를 밝힌 것이 이례적인 일
이라고 여기고 있다. 동시에 이번 편지발송을
앞으로 이숙경 전이사장의 의도를 뚜렷이 알
수 없지만 다시금 촉발체제 음모를 내비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으로 모아지고 있어 재단문
제에 대한 대안이 적극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숙경 전이사장은 편지를 통해 “98년 초 모
든 구성원과 약속했던 재단 개혁의 초심으로
돌아오고자 한다. 관선체제에서 민선체제로 돌
아오더라도 더 이상 재단 이사장직을 절대 말
지 않을 작정이다”고 서술했다. 그러나 앞으로
학교법인 동원유형의 전직은 어느 개인의 소유
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정제하면서 “김씨
동원문중의 종친회나 이 문열의 중심이 되어 동
원 및 김씨에 이(상)의 유지를 위해(有)에 따
라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되는 재단으로 다시 태
어나야 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또 이 전
이사장은 이러한 소신을 종친회 이사회에서 밝
히고 승인을 받은 바 있다며 자신의 의사를 뒷
받침했다.
이처럼 관선이사체제와 종중 양기를 얼마 남
겨두고 있지 않은 현시점에서 학내구성원에게
정당한 이숙경 전이사장의 편지는 시사하는 바



이 사진은 이숙경 전이사장이 보낸 편지다.

가 크다. 게 구성원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교수회의 회장 김태정(일본어, 전구사탐대
학수협회의회원 회장)교수는 “김씨 동원문중
회와 같은 특정 문중의 종친이 재단 운영의 중
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시대 착오적인 발상
이다”고 밝히며 “편지대로라면 촉발체제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다. 관선이나 임기가 만료
된 민선이사체제가 되더라도 우리학교 전구
생원의 뜻을 모아 공익성에 바탕을 둔 재단을 구
성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교수는 또 “정상
적인 사학의 경우, 설립자 권한을 인정하는 측
면에서 설립자 연고인이 재단규정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을 수 있겠으나 우리학교는
재단비리로 재단이 퇴진한 전례가 있었기 때문
에 그럴 수 없을 것이다”며 우리학교의 상황에
서 설립자 연고권을 적용할 수 없다는 근거를
들었다.
안배움터 총학생회 또한 이번 편지에서 박승
준 전 전이사장을 비롯한 구재단 세력이나 이
숙경 전이사장을 필두로 한 김씨 동원문중회
등 비리재단이 학내로 복귀하려는 음모가 엿보
인다는 의견을 같이하고 비리 재단개혁을 위한
학원자주투쟁으로 바리바리 할 문재임을
상기시켰다. 이에 서울배움터 부총학생회장 권
영선(중앙·인도어 97군)은 “이숙경 전이사장의
편지글에 대한 비판과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
한 선전포장을 만들 것이다”고 입장을 전했다.
98년 재단투쟁 후, 학내 분위기가 비리 재단
에 대한 경각심과 긴장감이 두드러지게 나타
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편지 발송 이후에도
구성원들은 이숙경 전 이사장의 의도 파악에
중점을 두고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 재단 관계자에 따르면 “다음주에
해 어느정도 파악이 될 것 같다”고 밝힌 바 있
어 앞으로 각 구성원들의 대표기구들이 구성원
들의 의견을 모아 재단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
장을 표명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세우는 것이
어느 때보다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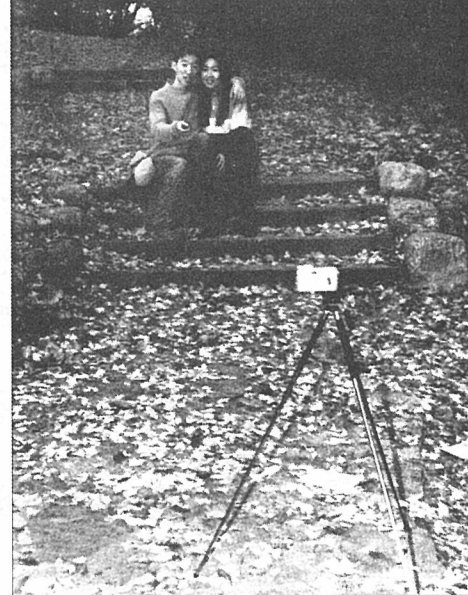
우혜나 기자 mimo323@hanmail.net

서울, 학내 소음문제 해결을 위한 공청회 개최돼

‘학내 소음문제 해결을 위한 공청회’가 도
서관, 학생회, 동아리, 종로, 학교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1일(수) 도서관 앞에서 열
렸다. 세계영화제 기간 잔후로 미미하고 열린 노
전행사로 인해 도서관 이용에 피해를 받은 학
생들의 제기로 개최된 이번 공청회는 노전극장
사용과 종로에 연속 규제 방안 등 자율적 제한
방안이 주로 논의됐다.
국립중앙도서관의 위원장 최규대(중앙·중
국어 97군)은 사회로 진행한 이번 공청회는 도
서관 이용의 피해사실을 알아보는 순서로 시작
됐다. 이번 공청회를 제정한 이원형(심장·경
제 93군)은 “노전극장에서 마이크 소리가 들려
오면 학생들이 도서관을 떠나기 시작한다. 학생

들이 도서관 이용을 기피하는 것은 도서관 교
육환경이 노전행사, 종로, 학교 연습으로 인해 침
해받고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이전 소음방지 대책 논의에서 동아리 연합
회 이숙경(사회·정치외교 97군)은 “대중, 세
계영화제 전후기간 동안 노전행사를 진행하
지”는 취지대로 재단했었다. 도서관차위원회
대표로 참여한 김인식(사상·영어 96군)은 “단
대보다 규모가 작은 행사와 외부행사는 노전사
용을 금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회의회를 구성
해야 한다”고 자율적 제한 방안을 밝혔다.
또한, 종로에 연속문제의 관련해서 외대종로
패션의학 박지은(중앙·인도어 97군)은 “종
로패션이 연습하는 소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

습공간을 얻었지만, 15개교 200명의 학생들이
그 공간에서 연습하기에는 공간이 부족하여 나
갈 수 밖에 없다”며 연습공간 확보가 시급함을
주장했다.
한편, 참가한 학생들은 노전극장 소음책 설
치와 도서관 이중창 설치 등의 시설확충을 통
한 소음방지 방안의 효과에 대해 학교측 대표
들에게 질의응답의 후, 뚜렷한 대안을 얻지 못해
후회 감을 표출하기도 했다.
이번 공청회는 소음문제에 대한 당사자들의 자
율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공간문제의 해결방
안 미흡과 종로 학생들의 의견을 들지 못한
점이 아쉬움을 남겼다. ▶관한사 3권
박수용 기자 soma-j



일 배움터가 출구로 문통을 걸어놓았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교
정의 가을 정취에 어찌하지 감상의 욕구가 들린다. 위 사진은 지난 5월
(월) 마태로바 동선에서 국립이 지기전에 사진을 찍은 다른 연인들
사진부

용인, 지난 1일(수) ‘왕산체전’ 개막

용인배움터 총학생회는 지난 1일(수)부터 10
일(금)까지 모든 왕산체전의 학내의 장 ‘왕산
체전’과 함께 1년 동안의 학우투쟁을 승리의
이름으로 기념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다.
이번 체전은 남자부 경기인 축구, 축구, 줄다
리기, 농구와 여자부 경기인 바둑이 소문동
장과 대문동장에서 대항해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체전 마지막날인 10일(금)에는
마태로바와 그 종로 결승전이 치러진다. 패
북은 시상식과 함께 참가자들이 즐길 수 있
는 대문동장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한편 학원자주회(학자) 실천단은 중심으로

중장기발전안 반대, 복지사안 해결 등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동아리연합회와 문예실
천단이 2학기 학우투쟁, 반미를 주제로 한 작
은 음악회도 개최한다.
이와 관련 용인배움터 총학생회장 이숙경(인
문·철학 90군)은 “모든 왕산인들이 소속동
장과 대문동장에서 대항해 토너먼트 방식으로
투쟁을 펼치고 이후 계획을 세울게 수립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숙경 기자 sseucwater63@hanmail.net

법인 이사회 열려

법인 이사회가 지난 달 20일(금) 본관 이사장
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는 2001년도 교수중
원계획안과 예정산전위원회 회의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교수총원안은 영어학부, 법학과 3명씩을 포함
해 양배움터 17개교 22명의 내국인 교수들 채
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예정산
전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현재 위원수가 11
명으로 규정돼 있는 자문위원회의 회의를 위
임 10인 이상으로 변경하는 안도 의결됐다.

박수용 기자 soma-j

서울배움터 학운위 열려

서울배움터 학내운영위원회(학운위)가 지난
달 30일(월) 열려 참가자들은 회칙변경안 의결
과 의대발전추진위원회(의발추) 위원장 선출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의 안건은 지난 서울배움
터 정제학생대표회의에서 정족수 미달로 부
결된 것으로 재차인원 5명중 2명이 참가한
가운데 회칙 20조 2호에 따라 재논의된 것이다.
학운위의 회칙 3개항과 선거시행세칙 8개항이
수정, 참가된 회칙 변경안은 학내 대표자 전
원 찬성으로 의결됐다. 변경안은 총학생회장
간섭되지 않았을 시 중앙운영위원회가 총학생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회칙 4조 4항과 ‘투
표시간 및 투표일’은 정족수 찬성으로 전원 출
석에 정한 찬성으로 여부를 결정해 투표종료 1
시간 전에 공고한다. 선거시행세칙 7조 1항 4
항 등의 안건도 각자 총학생회장과 의결 재
선거 과정에서 회칙에 미비점이 드러난 내용을
보완하는 내용이다.

또한, 서울배움터 의발추 위원장은 최규대
(중앙·중국어 97군)이 투표일인 2명중 2명
의 찬성을 얻어 선출됐다. 이로써 총학생회 기
본기구인 의발추가 동시에 인준해 공식적인 활
동을 할 수 있게 됐다.
박수용 기자

선거속보란	
사회대 학생회장 임창(신문방송 90) 312 명 추천으로 입후보, 선거일 - 11/14, 15일	
정치의학과 학생회장 임창(90) 81명 추 천으로 입후보, 선거일 - 11/9일	
신문방송학과 학생회장 정경진(90) 104명 추천으로 입후보, 선거일 11/9일	

1만여명의 선생님들 아스팔트 교실로 나온다

“어느 날, 선생님들이 아스팔트 교실로 나온다”
“사학의 부패유형별 조사에서 교직원 인사채용비리가 67.7%로 가장
높았으며 특히 이사채용과 관련, 기무공을 받았다는 응답이 67.3%
로 나타났다.”
“2006년의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제2년 전입금을 살펴본 결과 재단 전입
금이 한문도 없는 학교가 전체의 4.9%인 10개교였고 1%에도 못미
치는 학교가 전체의 64.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8년부터 2000년 상반기까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한
900개 사립학교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모든 학교에서 문제점이 적발
되었으며 적발건수도 4,309건에 이르렀다.”
“교육당국은 사립학교에 대한 권위감독을 허술하게 하고 부당한 감시
를 한다는 큰 문제점이 있다. 이는 전국 사학제단체에 대상을 걸리
주고 결국 부패를 조장시킨다는 부패를 주는 것이다.”
(자료출처: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국민참여단의 공동제정자료집에서)

지난 5일(일) 마태로바 공원에서 전교조 선생님들의 집회 모습

민족자주론
오대학보

서울

규정기초심의 위원회 열려

신규임용세척 변경안 등 통과

지난 달 30일(월) 열린 규정기초심의 위원회에서 신규임용세척 개정안, 통역, 지역대학원의 학칙과 시행세칙 변경안이 통과됐다.

이날 심의한 신규임용세척변경 내용은 '배출분야별' 용무자가 모집인원의 3 배수 미만이나, 학과에서 추천한 인원이 모집 인원의 3배수 미만일 경우에만 교수 채용을 보류한다'는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교무주임 이용호씨는 "더

욱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규정을 엄격했다"고 세척변경 이유를 밝혔다.

또한, 이날 회의결과에 따라 통역대학원은 학칙에서 유급조항을 삭제하고 이에 따라 진급시험을 전공구분 시험으로 대체하는 시행세칙을 변경했다.

한편, 국제지역대학원은 박사과정 개설과 석사과정 인원 85명 늘렸으며, 입학시 취학이었던 필기시험을 조항에서 삭제했다.

추진단, 17일(금)까지 내년도 세부추진계획서 요구

중장기발전계획추진단 3차 회의가 지난 달 22일(월) 기획조정처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는 지난 2차회의때 전부터에 작성토록 한 2000년 말까지의 계획서를 검토하고, 기간을 늘려 2001년도

세부추진단계획서를 오는 17일(금)까지 전 행정부서에 작성토록 했다.

이와 관련 기획조정처 주임 서동수씨는 "보고된 세부추진계획서를 검토하는 자리에서 위원들은 계획이 자세하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고 밝혔다.

9일(목)까지 영어학부 예술제 진행

영어학부예술제가 지난 1일(수)부터 오는 9일(목)까지 학부와 소모임들이 주축이 돼 세나나, 공연과 함께 체육대회, 가요제 등을 진행한다.

상시행사도 분수대 앞길을 '외역의 거리'로 지정하고, 그곳에서 즉석사진 콘테스트 행사 등이 열린다.

한편 7일(화) 어문관 503호, 8일(수) 어문관 507호에서는 늦은 5시부터 영화와 소모임 '블러가' '사우스파크'와 '토이

스토리'를 상영한다. 또한, 예술제 마지막 날인 9일(목)에는 반대향 체육대회와 폐막식이 열린다.

이에 앞서, 지난 1일(수)부터 8일(월)까지는 3부대 알감을 '외역의 거리'로 지정하고, 그곳에서 즉석사진 콘테스트 행사 등이 열린다.

이와 관련 기획부장 김승선(90)군은 "대중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행사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일본어과 10일(금) 정기총회 개최

일본어과 정기총회가 오는 10일(금) 5시 30분 대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정기총회는 학과장실에서 개설한 과 홈페이지와 홈페이지, 학생회 정반적 문제제기, 노천해문제에 관한 설문, 사업보고와 평가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날 박석재, 재학생 회합과 2 학기에 집중부 활동이 낮아지는 것을 학생회와 전반기의 문제점을 논의하는 것은 내년 학생회 사업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 학생회장 장기원(90)군은 "상거를 앞두고 내년을 준비할 수 있는 회의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13일(월) 대학생 창업강좌 열려

대학생 창업강좌가 오는 13일(월) 2시부터 5시 40분까지 국제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서울지방중소기업지원 지원 센터와 주관으로 서울, 경기 지역의 대학을 순회하며 열리는 이번 행사는 현재 창업보육기 조성하고 미래 기업가로서의 자질과 전문지식 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이날 5명의 외부강사는 △IT산업의

현황과 전망 △벤처기업 성공사례 △벤처 창업과 자금조달 전략 △SBC와 창업 성공사례 △벤처기업에 있어서의 지적 재산권 활용방안에 대해 강연한다.

이와 관련 학생회협정본반대 취업보도팀원 황승우씨는 "이번에 관심있는 학생들이 배움에 구멍없이 참가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총장배 테니스 대회

지난 달 28일(토) 마천테니스코트에 열린 제 28회 총장배테니스 대회에서 강인도(법·법학) 96군과 이소영(상경·경영 98)이 각각 남자, 여 단식 경기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테니스부 주최로 열린 이번 대회는 남녀 모두 48명이 참가해 남녀 단식과 남자 복식경기를 토너먼트로 진행했다. 여단과 달리 이번 대회에는 외대생뿐 아니라 서강대 테니스부 선수들도 참가했다. 또한, 남자복식 경기에서는 강인도군과 김장호(상경·영이 97)군이 한 조를 이뤄 우승을 차지했다.

법대, 부학생회장제 폐지

법대와 학생회는 지난 달 17일(화) 임시법대학생대표회의를 열고 부학생회장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 안건은 지난 달 13일(금) 열린 2학기 법대학에서 부결됐었다. 안전상과 과정이 공유되지 못해 이날 재논의할 방침이었던 15명의 찬반찬성으로 통과됐다. 또한,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학생회장직이 2학기 1/4 전 공석이 될 경우는 보결선거를 실시하며, 1/4이후일 경우는 법대학회를 통해 선출한다.

마인어과

동문의 날 행사

양배출터 블레이·인도네시아어 마인어과 동문의 날 행사인 '베루데카(BERUDEKA)'가 지난 4일(일) 서울배출터에서 열렸다.

매년 양배출터 학생들이 공동으로 준비하는 이번 행사는 크게 체육대회와 동문들의 발로로 진행됐다. 특히 올해 축구, 축구, 혼성발아구, 밀라티아시자 전통 놀이 등의 경기가 열린 체육대회에서는 참가자들간의 관계의 폭을 넓힌다는 취지에서 다양한 조를 편성해 경기를 치렀으며, 현재 국내 유학·중인 말레이시아 학생들이 초청해 전통놀이를 배우는 자리도 마련했다.

또한, 동문들의 방에서는 용인배출터 학생들이 민속춤, 서울배출터 학생들이 원노래, 세나나 축하 특별공연 등 각자 선보였다.

한편, 동문친목회는 서울배출터 이경주(00)학과 용인배출터 이경주(94)군에게 각각 수여했다.

이와 관련 서울배출터 과학생회장 안주영(98)은 "선배들과 양배출터 학생들이 이 자리를 통해 최대한 많은 것들을 교류하고 공감할 수 있겠다"고 평가했다.

아랍어과 동문가을

운동회 진행

아랍어과가 지난 달 29일(일) 어문관 소문동에서 동문가을운동회를 개최했다.

동문들의 주의로 처음 열린 이번 행사는 줄리타기, 축구 등 체육대회와 기념품 증정식으로 진행됐다.

이와 관련 학생회장 황해택(94)군은 "선배님들이 먼저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저들이 어릴때 꿈이 많았지만 앞으로 열심히 준비해서 내년에는 서울 배출터와 함께 하고 싶다"고 말했다.

제어계측공, 모교방문의날

제어계측공학과는 지난 5일(일) 오후 2시 공대 207호에서 모교방문의날을 개최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선배배출터의 상견례를 진행한 후, 내년부터 과 명칭이 다변공학과로 변경되는 것에 대한 간담회를 했다.

이와 관련 과 학생회장 구교민(94)군은 "모교방문의날 행사를 처음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선배배출터의 든든한 지원을 확신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용인

FBS 오는 8일(수) 방송제 개회

외대교육방송국(FBS)이 오는 8일(수) 늦은 4시 30분 저녁 73호 '용인'을 넘어 새로운 세계로 문을 15의 방송제를 개회한다.

이번 행사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는 '관용, 열기, 용인'의 내용을 드러내, 영상, 글로 등이 포함된 종합구성, 단순 보도 형식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한편, 이번 방송제를 홍보하기 위해

교육방송국은 지난 1일(수) 후속관 앞 마당에서 학생들로부터 신청곡을 사전에 받아 함께 노래하는 오픈스튜디오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국장 손연희(동양학·체코 98)장은 "방송제 주제를 대해 모든 외대인들이 함께 생각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오랜 기간 정성 들여 준비한 만큼 학생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산실, 주민 컴퓨터 교육 실시

전산실 주관으로 지난 6일 방학터 모현 인근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컴퓨터 교육이 차차 기초과정 강의를 진행중이다.

12월 말까지 계속될 이번 교육은 김대중 대통령의 정부와 2000 발표로 인한 시청각의 제안과 인근 주민들의 유대 강화를 위해 시작됐고 전산실측은 밝혔다.

한해 삼삼교육원의 컴퓨터 전문 담당자가 일주일에 4번 일도주, 한글, 인터넷 기초, 엑셀의 과정을 교육하고 있으며 교육을 원하는 주민, 교육원은 모현면사무소 총무실에서 접수하면 된다.

이와 관련 전산주임 이은우씨는 "주민들이 더 많이 참석해 일상 생활에서 컴퓨터 사용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며 "인근 주민들과 유대를 쌓을 수 있는 이번 행사에 학생들도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루마니아어과 강연회 열려

주한 루마니아에서 강연회가 오는 7일(화) 늦은 2시 30분 외국학종합연구센터 우역출에서 열린다.

올해 6월 부임한 루마니아어과 학과장 조영호 교수는 이번 강연은 주한 루마니아에서 Amb. Viorel Iacovici가 '루마니아의 한국'이라는 주제로 강연

을 한 후 청중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이와 관련 학생회장 김민석(96)군은 "흔히들 아는 이번 기회가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며 "학과 학생들도 많이 참석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매향리 장승제작 위해 도별

지난 10월 28일(목) 총학생회가 어문관 507호에서 열린다.

총학생회측은 매향리 장승제작을 위한 목적으로 나무를 절단한 것이라며 "자연환경을 보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관련해서는 "이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총학생회에 경고하며 하며 교내 홈페이지에 사진과 함께 글을 실는 등 이번 사건에 대한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한편 절단된 나무는 그대로 방치된 상태다.

정보산업공, 인터넷방송국(engTV) 개국

정보산업공과대학 인터넷 방송국(engTV)이 지난 달 17일(화)에 개국했다.

정보산업공과대학 인터넷 방송국은 소속 전대 10여명의 학생들의 구상을 거쳐 지난 학기 초부터 시험방송을 해 왔다.

특히 이번 방송국은 지난 10월 13일(목) 막을 내린 세간전 행사를 동영상으로 보도했으며, 동아리와 과 행사를 촬영해 사이트에 올리기도 하는 등 주로 학내 학생들의 활동을 다뤘다.

이와 관련 방송국장 이태호(전지공 94)은 "방송을 보며 시청자들이 대

생각에 진취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하는 언론기관이 되는 것이 우리 방송국의 목표다"고 말했다.

한해 방송국은 외대 뉴스나 음악방송을 하는 것 외에도 특별기획(스포츠 메리)과 같이 시청자가 참여할 수 있는 코너를 준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한편 방송작가, 촬영, 사서관리의 신인력원을 각각 1명씩 모집한다.

인터넷 주소: engTV.hufs.ac.kr

이 사람

박정희 총상을 철거한 우리학교 동문 박정희(91년 법학과 졸업)군을 만나



“박 전 대통령은 청산해야 될 대상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한국사회에서 청산해야 될 인물이기 때문에 청산 대상은 아니"라고 단호하게 얘기하는 박정희(91년 법학과 졸업)군을 만나

그는 지난 5일 문화체육(박정희) 전 대통령기념사업회 임원인 당시의 집정관에게 세무가 있던 박정희의 청산을 철거해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있는 민족문제연구소의 사무처장을 맡고 있다.

어떻게 청산을 철거하게 됐느냐는 물음에 "역사적 과업을 지니는 박정희 대통령의 기념관을 청산에 반대하기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여의도의 행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가장 언론에서는 박정희에 대해 긍정적인 보도를 했으며 후대에 대해 폭력 역사인식을 심어주고 있다"며

박정희의 흉상 역시 그것을 기리는 것은 역사를 그릇되게 기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난했다.

박정희의 흉상에 일장기를 걸고 철거시켜 언론과 경찰의 시달림을 받아서인지 당시 피곤해 보이는 그는 한때 "강도상" 죄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그는 "세월과 더불어 파멸적인 죄를 짓고 연행하라는 건권을 반대한다"며 정치적인 파장을 축소하기 위해 강도상죄로 모든 혐상에 분노했다.

취재 도중에도 사건상황과 안부를 묻는 전화가 계속 오는 것을 보고 민족문제연구소를 비롯한 용인대(인민)주위, 인터넷신문, 대외보, 서울서부지구대(총학생회)연, 민주노동당, 대외문, 은관 마포지구당 등 5개 기관·단

체 회원들이 의도했던 여론화 작업은 어느정도 된 듯 보였다.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어떤 이유로 일하게 됐느냐는 물음에 그의 대학시절의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대학에 들어와 동 문이러가 '우리학생연구회'이다. 그곳에서 우리나라 역사를 공부하게 되면서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됐다"라는 말에 그는 "정치적인 파장을 줄이기 위해 강도상죄로 모든 혐상에 분노했다."

외대의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만 현대에 문제가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고쳐나갈 수 있기에 '외대부위'임장으로 활동하던 당시 외대(학) 총학생을 다 했다"고 말하는 모습에서 용인대(인민)주위(박정희)를 알 수 있었다. 그는 역사인식과 재난정면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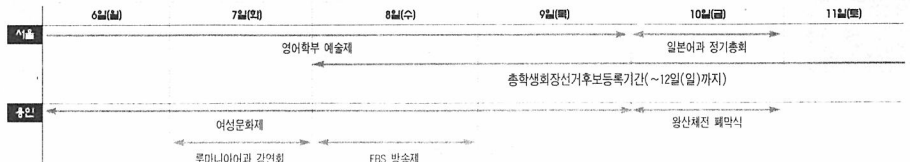
마찬가지로 설명서를 발표하거나 학교 측에 문제 제기하는 방법은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며 다수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는 행동이 필요

한 시기도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해달라는 부탁에 "김대중대통령은 권력자의 거대한 역사인식을 보여야 한다. 국민이 역사적 인물과 화해해야 풀리는 것이다. 정치인이 화해한다고 풀리는 것은 아니다"며 박정희기념관 설립 반대에 국민들의 열의는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대학부

조간일정표



공간문제가 소음문제 해결의 열쇠

협의회 구성 통해 장기적 대안 마련해야



도서관앞에서 소음 공청회를 열고 있는 사진이다.

이런 공청회가 열리게 된 것은 직접적으로 지난달 5일(목)부터 13일(금)까지 노천행사가 잇따라 열린 것이 이유가 됐다. 그 동안 근방에 있는 도서관과 노천극장의 공간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것이 다시금 제기됐다고 보아할 것이다.

이날 공청회를 통해 노천 소음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은 것은 '케터제'와 '별의기구 설치'가 대표적이다. 케터제는 1학기 대동제 기간, 2학기 세계영화제 기간을 포함한 2주 동안 노천 이용 행사를 집중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단과대학 이삼급 해오름식 7회, 동리공연 5회를 기준으로 삼는다던 이러한 안은 실현 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청회에서도 언급이 있었지만 노천행사가 드

들르 구성과 '케터제'와 같은 방안을 추진하고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논의됐다. 한편, 종문과 연습과 관련해 도서관 자치위원회의 종문제 연한이 서로 의견 교환을 통해 매우 필요일과 필요일과 종문연습을 실시하지 하지 않음, 주말 연습은 미비로 연습실과 미비로만을 이용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런 공청회가 이러한 자율적인 규제방향을 논의했다는 점에서는 평가할 만한 사항이지만 주변 논의가 서로의 권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도서관 앞 4주 단 도서관 열람실 사용을 제한하고, 그 나머지 기간 동안 노천사용을 제각각 왜 학생들이 보장되어야 할 '습관'과 '자

치권'이 서로 상충하게 되는 것을 방지할 뿐이다.

결국 근본책은 공간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물론 이날 공청회에서 노천극장 방음벽 설치나 도서관 이중창 설치 같은 안들이 논의됐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학교측의 생각은 회의적이다. 노천 소음벽과 도서관 이중창 설치에 대해 관리과장 서은석씨는 "영포출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도서관 전체가 울려 소음이 일어 이중창 설치가 큰 효과를 줄 수 없다. 그리고 7-8미터나 노천을 둘러싸야 하는 방법들은 노천의 기능을 잃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종문과 연습공간 확충과 관련해 학생주인 이재정씨는 "건물신설이 되기 전에는 종문제가 요구하는 공간을 지어 줄 수 없는 실정이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이윤형(상경·경제 99)은 "학교측은 근본적인 공간문제 해결을 위해 중장기방안에 이러한 문제점을 검토하는 등의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음문제 해결을 위해 공청회에서 논의된 합의와는 자율적 규제 방안만 아니라 공간문제를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요구하는 기구로서 위상을 정립해야 한다. 또한, 공간문제를 대한 중장기적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블이야!

학교식당에 관한 설문조사 분석

식당불감도 수치 높아

윤인배(물리·대학학생회)가 식당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생들의 불만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설문조사는 크게 메뉴, 식당 선호도, 해결방안 등 총 9개의 문항으로 이뤄졌다.

첫 번째로 메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학생들이 좋아하는 메뉴로는 볶음밥, 콩까스, 생강스 등 거론됐다. 이는 메뉴가 다양하지 못하고, 음식의 맛과 질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학생들의 불만에 대해 생활사무국 사무과장 정진석씨는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학생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메뉴를 시키는 정도가 될 것이다"며 식당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내 놓았다.

또 식당 선호도에 대한 조사에서는 그나마 먹을만한 식당을 고르라는 문항에서 이문관 생협, 기숙사 이리코, 후복관 이리코 식당순으로 집계돼 후복관 식당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처럼 이리코의 선호도가 떨어지는 것과 관련하여 이리코 식당 지점장 박준희씨는 "개인적인 기호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 그 많은 학생들의 의견을 따르기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반응했다.

마지막으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학생들이 △학교식당 자체를 모두 생협이 통합 직영했으면 좋겠다 △학교에서 복지금을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생협측은 "스콜바스의 이용으로 이동권이

넓어졌 학교식당의 이용률이 점점 낮아지고 이용이 맞지 않는 등 운영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고 토론했다.

이처럼 이리코의 투자에도 한계가 있음을 고려할 때 학교에서 복지금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면는 학생들의 의견은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현재 복지금을 담당하고 있는 총무처는 "설문조사한 생협 자체를 알지 못했다"며 "생협 회의 때 함께 의논해 보겠지만 식당문제는 생협 주관이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할 일은 없다"고 말해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음을 나타내 근본적인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의 설문 내용에 대한 문제점들도 제기됐다.

설문조사에 응한 학생 중 정운정(서유림·불이 00)양도 "음식의 질에 비해 값이 비싼 것을 문제 생각했는데 설문 문항 중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빠져 있어 어이없었다"며 "문내내용이 다소 한 폭으로 치우친 느낌이 있었지만 결과들을 잘 분석해 학생들의 의견이 많은 부분 반영됐으면 한다"고 말해 설문지의 문제 자체가 구체적인 개선방향이 나올만큼 구체적이지 못했는지 지적했다.

이처럼 설문결과에서도 지적됐듯이 대학당국은 현재 식당에 대한 상당한 불만과 양배움터의 식당문제가 고질적이라는 점을 직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다.

이수경 기자

악법에 한랭전선 긋기

국가보안법 폐지, 사립학교법 재개정 되어야

고유가와 경제위기로 확산. 의로계의 폐업에 따른 한겨레의 고통, 대동 피해로 인한 농민들의 어려움 등으로 국민들 안에서 한숨소리가 들려올 때 한겨레의 국민위원들이 한창 바빠질 시기가 왔다. 법사, 재정, 통일, 정보보호 등 15개 상임위원으로 대법원, 한국은행, 외교부, 서울특별시, 국가정보원 등 20개 정부기관과 산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가 지난 달 19일(목)부터 이번 달 7일(화)까지 약 20일간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이가 국정감사장을 특정 정치인에 대한 '도상장'으로 이용했다"(박기선 민주당 의원) "사생활 침해나 수사방해의 목적이 있는데 여당의 국정감사 방해는 특정한 데 대한 비호이다"(정인승 한나라당 의원)등 여야간의 한랭전선을 긋기보다는 현재 국민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사안에 대해 시급한 논의를 해야 할 것이다.

대법정장이 지난 2일(수) 국회법사위에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9월부터 올 8월까지 일련된 국보법 위반 사범은 3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57명에서 30% 감소했다고 나타났다. 이는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이 급격감소했다가 보다 국가보안법이 그만큼 효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지난 9월 20일 윤승년 전 총학생회장 하(20)세의 9년 3월 '윤승년 혁신헌'라는 이적단체인 결성식과 총회에 잇따라 참석한 혐의(이적단체구성, 찬양·고무로 기소)로 1심에서는 징역 1년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는 이적단체구성 부분에 무죄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선고받았다. 이렇듯 구속신세를 면치 못한 수사기관의 무리한 체포 및 연행, 무력화 시 수사, 공정하지 못한 재판과 사법부의 태도 등 인권침해문제는 지난 정권과 별로 다를 바 없다고 지적할 수 있다. 또한 국민의 78.2%가 국가보안법 개정 또는 폐지를 논하고 있고 변호사의 9.9%, 법학교수의 99%가 개정 또는 폐지를 지지한다는 한 언론의 결과가 나왔듯 국가보안법에 대한 국민 반감의 수치는 높다. 지난 10월 26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인명집회를 냈다.

지난 달 31일 한 교육과 대학생활을 '총체적 위기'라고 규정하고 '교육정책과 교육현장을 개혁하고 교수들의 교권 수호와 신분보장을 위한 교수노동조합을 반드시 필요'라고 밝힌 민주평화위원회(민평위)에서도 입법정원사를 국회에 제출했다. 그들은 최근 교수들을 금지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제 58조의 개정을 요구하며 대학 교수의 정치활동을 허용하면서 노조 설립을 허용하는 것은 일거양득이라 보았다. 나아가 참교육 학부모, 전교조, 참여연대 등 20개 시민단체 역시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서명 및 설문지료를 국회의원에게 보내며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전교조 소속 교사와 학부모 학생 등 1만여명은 5일(일)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혁명을 위한 국민대회'에서 부패 사학 혁명과 공익이사회 도입 등을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면 순순히 독배를 마신 스킨리스크가 전쟁 말고도 싶었던 것은 악법으로 인한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악법을 어서 고쳐라는 강한 충고를 것이다. 국가보안법과 사립학교법에 대해 국민들이 입법정원을 국회에 냈다. 부당하면 저항과 반발이 나오기 마련이다. 국정감사는 국회의원들의 감정자료를 하는 곳이 아니라 부당한 것을 부당하지 않은 것으로 바꾸기 위해 시행한다는 상식적인 원칙을 국회의원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교비지급, 규정만 따르면 의미 상실

용인 동대학생회 없지만 학생회 행사진행 해온 점 인정해야

1학기부터 이어 교비지급문제가 또다시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 26일(월) 용인백제대 중앙학과와 학생회장들을 비롯한 다른 단과 학생회장 등 10여명의 학생들이 동·서대교하를 방문해 중앙대에 학생회가 없기 때문에 행사교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대학당국의 방침에 대해 항의했다. 그러나 학생들의 위협적인 행동으로 교학과 주임이 교비지급 거부사를 밝히며 집기를 들고 학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등 교비지급을 둘러싼 심각한 마찰이 벌어지기도 했다. 따라서 규정보다는 교비의 본래적 의미에 충실하고 두고 앞으로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게 대부분의 시각이다.

지난 해 중앙대대학생회는 학생회 건설을 위해 올해 초까지 선거시기를 연설했으나 후보자가 없는 관계로 결국 학생회를 건설하지 못했다. 때문에 중앙대에서는 각 과 학생회가 주축이 되어 세제, 생활, 문화, 해오름식 등의 사업을 계획하고 행사를 치르는 등 단과 학생회의 역할을 대신해 왔다. 이에 대학당국은 행사보조금인 교비 지급을 위

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공동책임'을 진다는 전제로 각과 학생회장들의 연서명을 받은 후 교비를 지급했다. 그러나 2학기부터 들어서 각과 학생회가 없는 상황에서는 교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교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학교측에 따르면 "1학기 때에는 교비를 지급하는 것이 규정에 어긋나지는 않았다. 그러나 알게 된 이상 더 이상 행정상의 규정을 어길 수 없다"며 교비 지급을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전했다. 반면 총학생회와 사무과장 이영기(인문·사회 4)은 "사실 규정에는 학생회가 없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언급이 있지 않다. 이런 경우, 유관과에서 가능한 교비를 지급하는 이유는 학교가 학생들의 행사를 보조하기 위해서"라며 "유관과에서는 그 규정이 만들어진 이유나 규정의 정신에 따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사실 중앙대대 학생회 건설되지 못한 상황이란 각과 학생회장들이 첫 사업을 계획하고 이에 맞게 행사를 진행했다. 중국어과 학생회(전노현 05)군은 "7개과 학생회장들이 전체 단과

학생들을 책임진다는 의미에서 단과 사업을 집행해 기기로 했다"며 "물론 단과 학생회와 같은 대표성을 지니지 못하고 행사과정에서도 부족한 부분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단과 학생회가 없다고 해서 그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은 전체적으로 학생들의 활동을 보장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고 말했다. 또 임정민(문리 08)은 "단과 학생회가 없어 우려스러운 부분은 많았지만 올해 여러 단과 행사를 치를 수 있었던 것은 각과 학생회장들의 노력이었다"고 감사하고 평가하며 "학생회가 없어 교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은 원래 교비를 지급하는 의미를 상실하는 것이고 교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학생회가 없으면 행사조차 하지 말라는 말과 같다"고 비판했다.

또한, 교비지급의 이유로 2000년 예산 총과(학생지원비)가 지난해 10%보다 1억7천만원 가량 늘어나 1억 7천만원 정도도 책정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의 활동을 보호·지원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대학당국의 방이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우혜나 기자

정모군 <24> 정현도

한번 웃어봐! 내마음을 다쳐주고 싶지 않은 너를 위해 웃어볼게

한번씩 내마음을 다쳐주고 싶지 않은 너를 위해 웃어볼게

내마음을 다쳐주고 싶지 않은 너를 위해 웃어볼게

내마음을 다쳐주고 싶지 않은 너를 위해 웃어볼게

동서식품
www.dongsuh.co.kr

자꾸 자꾸 당신의 향기가 좋아집니다

제가 당신의 여왕이라구요?
그러면 알아요? 여왕이 좋아하는 향기가 어떤건지.
당신의 향기, 맥심의 향기
자꾸자꾸 당신의 향기가 좋아집니다.

향이 좋은 커피, 맥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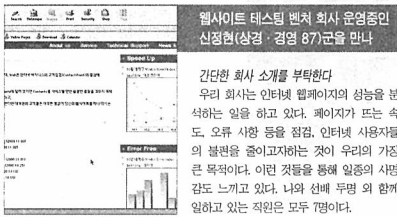
커피 본연의 맛
오리지널

부드러운 맛과 부드러운 향

리치

깊고 풍부한 맛

리치



웹사이트 테스트 벤처 회사 운영중인 신정현(상장·경원 87)군을 만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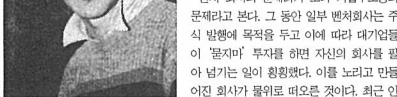
간단한 회사 소개를 부탁한다
우리 회사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성능을 분석하는 일을 하고 있다. 페이지가 뜨는 속도, 오류 사항 등을 점검, 인터넷 사용자들의 불편을 줄이고자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이다. 이런 것들을 통해 일종의 사명감도 느끼고 있다. 나와 아내 두명 의 함께 일하고 있는 직원은 모두 7명이다.

업체의 운영방식은
일반 창업할 때 투자자로부터 일정정도의 투자를 받았고, 나의 자본도 포함되어 있다. 대부분의 인터넷 업체들이 방만한 투자 자본에 의지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스스로의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중이다. 사이트를 방만한 업체들이 우리에게 의뢰를 하면 그 돈으로 운영을 한다.

요즘 벤처기업의 위기를 어떻게 보는가
벤처라는 의미의 출발은 '창업'이나 '돈'의 목적이 아니다. 인터넷은 더 많은 사람들의 '정보공유'의 욕구를 채워주는 공간이어야 한다.

하지만 두기의 목적으로 벤처기업에 투자를 한 기업인이나 투자자들의 문제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것 같다.

가장 힘든 점은
역시나 자금시장이 경색되었다는 점과 인력이 없다는 점이다.



서울배출된 벤처들리 '지'의 운영진(상장·경원 87)군

대학생으로서 바라보는 '정현' 시간'에 대해 한마디 한마디
벤처 회사의 문제점이 보다 기업구조상의 문제라고 본다. 그 동안 일부 벤처회사의 주식 발행에 목적을 두고 이에 따라 대기업들이 '물고기' 투자를 하면 자신의 회사를 팔아 넘기는 일이 횡행했다. 이를 보고고 만들어진 회사가 될위로 떠오른 것이다. 최근 인터넷을 중심으로 우후죽순 생겨난 회사의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쉽게 창설되고 대기업에 인수합병 되었다.

그렇다면 올바른 벤처기업의 성은 무엇이고 생각하는가
먼저, 좋은 아이디어로 승부하고 연구결과가 기존의 것보다 좋다는 확신이 있을 때 벤처를 창업해야 한다. 또 이러한 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제도적인 틀을 갖추어야 한다. 자금유동현황을 투명하게 해 탈세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제도적인 장치가 투명성을 높이고 투명성이 올바른 벤처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벤처의 카네기나 빌게이츠처럼 사회에 환원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렇지 못한 기업문화풍토를 바꿀 수 있는 역할을 했으면 한다.

'지' 동리리를 운영하면서 나름의 운영 방침이 있다면 어떠한 것인지 말해달라
어떤 일을 하든 그 주체의 생각과 철학이 중요하다. 똑같은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더라도 누구는 핵폭탄을 만들고 또 어떤이는 인공지능을 만들기 때문이다. 벤처도 마찬가지다. 수단이 확보되고 시스템이 구축되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일차적으로 필요한 것이겠지만 우리 나라와 같이 오묘한 현실에 부딪혔을 때 통회되지 않고 좋은 아이디어라는 소신을 가지고 벤처에 뛰어들 것이다.

우레나 기자 mmo329@hanmail.net

벤처이데올로기 비판

모험의 선두에 서려면 정확한 나침반을 들어라

정보통신기술이 떠올리는 화려한 이미지와 결합하여 벤처기업은 사람들의 마음을 온통 흔들고 놓는다. 성공한 벤처는 시기와 질시의 대상이자 부러움의 화신이다. 벤처는 남을 착취하지 않고도 거액의 돈을 만들 수 있고, 돈 없는 사람도 아이디어 하나로 승부할 수 있다.

그런 벤처 이데올로기에 세뇌된 사람들의 눈에는 '거품'도 '진동'으로 보이고 벤처만이 살길로 보인다. 그러나 코스닥 주식 시장의 행방이로 무섭게 부풀어 오르면 벤처 열기에 구멍이 나기 시작했다. 대기업이 술술 방물을 걸어 벤처 사냥에 나서고 벤처 창업자들은 자신들도 결국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릴 수 있는 노동자라는 인식을 갖게 이르렀다. 여기서는 벤처를 둘러싼 신뢰와 이상에 대해 비판적으로 살펴볼까 하자.

벤처는 돈대박이다

인터넷이 상호소통의 공동체에서 시장을 위한 도구로 변질되고 있다. 온 나라가 인터넷 열풍으로 뜨겁게 달아오르는 지금 도처에서 이런 조짐들이 보인다. 올해 들어 이렇듯 인터넷이 뜨는 이유는 작년 말부터 시작된 코스닥시장의 '벤처 열풍' 때문이다. 코스닥시장의 시가 총액은 1년만에 13배나 늘었다.

어쨌든 초기 인터넷 사용자들이 가졌던 자유와 공동체의 꿈이 자본주의의 상업적 '탈속'에 의해 사라지고 있다. 그래서 '나눔과 함께 할'이라는 초기 인터넷 공동체의 꿈은 점차 퇴색된다. 우리의 인터넷이 시장 논리로 변해 버리고 있는 것이다.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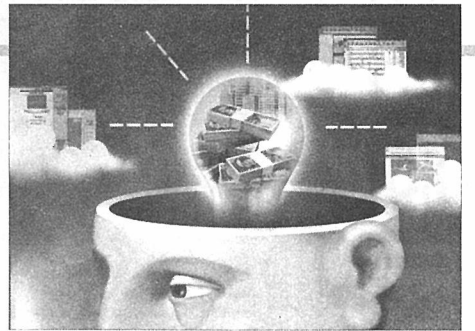
벤처는 대박이라는 이데올로기는 그간 좋았던 시절의 벤처 사업 환경이라는 하부토대를 유망하게 반영하는 이데올로기이다. 나머지는 전부 이들의 이데올로기가 만들어 놓은 유토피아의 꿈이자 환상이었다.

정보통신산업의 경우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갖고 투자한다. 이들의 사고방식이 1970년대 북부인의 한탕주의적인 틀에서 한치도 더 나가지 못한 것이면 단언하건대 우리사회의 앞날은 지극히 어둡다. 참외적 아이디어가 중요하다. 하지만, 아이디어만으로는 돈이 되지는 않는다. 아이디어가 상품화되기까지 수많은 기술과 고공이 뒤따르는 것이다. 천박한 한탕주의의 꿈이 여전히 살아있는 한 디지털 한국의 앞날은 없다.

벤처는 새로운침입이다

'신세대', '신지식인'에서 '신경제'에 이르러 '신기술' '신문화'에 대한 신뢰와 몰입은 상품과 노동자의 생명을 단축한다. 상품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생애 주기도 단축된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해 '새로운 상품과 시장'에 적합한 노동력으로 지속적인 인력 충원이 이루어진다. 신경제는 이러한 침입의 끝을 달리는 경제이고 그것은 변화를 변화시키는 새로운으로 부각되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 없는 성장 신뢰의 뒤에는 '고공없는 성장'과 '착취없는 빈곤'의 현실이 놓여있다.

IMF 위기 이후 벤처는 새로운 기업문화의 창병이자 한국의 경제 위기를 구원할 수호신이었다. 그것은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와 젊음과 창의력의 동맹이었다. 새로운의 신화는 젊음과 미래에 대한 강박으로 나타났다. '네트 세네레이션(Net generation)'이라는 신조어로 10대 시장을 만들고 더 나아가 '네트세대(Net kids)'라는 말로 코리안계까지 시장으로 끌어들이었다. 그러나 정장이 캐주얼로 바뀐 외형 말고 진정한 문화의 새로운이들에게 있었는가?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매체를 잘 활용하여 아



떻게 돈을 만드는가에 골몰한 것 말고 어떤 새로운을 갖고 있었는가? '열정'이나 '협'가드나 '협' 디자인이나 리노나 하는 새로운은 직종군의 형성 말고 어떤 새로운 대안들을 갖고 있었는가? 인본과 광고가 만들어 놓은 영타리 이미지와 우상은 온통 새로운의 화신으로 넘쳐 나지만 진정한 새로운은 없었다.

벤처는 자유로움이다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아니다. 소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아니다. 그러면 이들이 성취한 자유로움은 무엇인가? 그것은 기존 규제로부터의 자유로움이자 노동의 대항으로부터의 자유였다. 병역특례를 적용하는가 하면 인턴 사원의 노동력을 착취하기도 했다. 겉보기엔 미래의 스펙을 약속하면서 현재의 삶이없는 노동의 가치를 몰아냈다. 유연노동, 재택 근무제라는 틀로 시간과 공간을 자유롭게 풀어놓으면서 모든 시간과 공간의 자본화를 기도했다.

벤처기업이 생산한다는 생산품의 상품의 형태를 따는 한 수많은 지식노동자들의 노동은 회사 혹은 자본가의 몫으로 전유된다. 지식과 정보의 공유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회사 내부의 업무에만 해당되는 구조이다. 이들의 자유로움은 상품소유와 시장으로부터 조금도 자유롭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자유는 자업한결이나 머리카타 세겔의 세상에서 한결같은 더 나가지 못한다. 이러한 자유조차도 경제위기 앞에서는 언제 없어질지도 모른다.

벤처의 자유분방함과 조직의 네트워크화는 물론 새로운 활력으로 자리잡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초기 준비 단계를 벗어나 자금 지원을 받고 회사의 모습을 갖게 되면 수평적 관계는 재현될 것임이 분명하다. 권한과 업무의 확장도 조직의 틀을 벗어날 수

는 없게 될 것이다. 주식 상장이 다른 경영상의 변수로 회사의 규모가 커지면 이러한 권한강화의 신뢰는 더욱 실효가 적어질 것이다. '혁신 환경'의 눈부신 신뢰는 하루아침에 '혁신 탄압'으로 뒤바뀔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벤처는 기술이다

벤처는 기술이라고 소려쳐 외쳐왔지만 한국 벤처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투자 비율은 평균 3.5%에 불과하다. 많은 벤처기업들은 기술 경쟁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 이들은 창의적인 기술력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신상품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지 못했다.

우리나라 벤처의 경우 새롭게 성장하는 IT 분야의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한 벤처가 매우 드물다. 인터넷 사용자가 늘어나고 인터넷을 활용한 전자상거래가 커지면 커질수록 인터넷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통신 장비와 관련한 하드웨어에 대한 수요가 증대된다. 최근 통신장비 회사인 시스코사의 주가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웃기고 있음으로 떠오른 것은 이러한 시장 구조의 특징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나 자생적인 상업 모델이나 가치사슬을 1~2년 후 어떻게 할 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다. 주식 시장을 통해 흘러온 돈으로 당분간 풍요로운 시절을 보냈지만 이제 그들의 앞날에는 수많은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다. 이 어려운 시련을 넘기려면 기술과 창의력을 새롭게 다듬어야 한다. 그리고 진정한 새로운 창조와 모험의 선두에 서려면 기업의 가치관과 방향을 어찌 세워야 하는가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이다.

백옥인
(서울산업대 화학과 교수)

소리없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지금 계시는 주변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거리의 자동차도, 지하철도, 아이들의 자전거도

철이 없다면 달릴 수도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그 철을 만드는 세계적인 철강회사-포스코

철이 없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멈춰 버릴지도 모릅니다.

소리없이 세상을 움직이는 여러분의 포스코입니다.

소리없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POSCO
www.posco.co.kr





첫번째 장애인 영화제 보도

처음으로 그들이 극장에 간날

장애인 스스로 문화소비자, 생산자가 될수 있는 환경 마련해야

"영화나 TV를 볼 때 행동하는 모순만 보나 무슨 내용인지 도저히 알 수 없어 더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그래서 TV를 보지 않아요. 듣지 못한다는 게 너무나 아쉽고 속상한 일이지요"(청각장애자 송주 성실학교 이수민)

지난 2일(목)부터 5일(일)까지 4일간 아스트레 재팬에서 열린 첫 번째 장애인영화제는 영화로만 있으면 누구나 볼 수 있는 영화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 극장의 한 자리에 차지할 수 없었던 이들의 간절한 바람이 모여 시작됐다. 지난해 봄, 한국장애인회와 장애인영화제위원회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한국영화 '여러'에 한글자막을 넣었던 것이 장애인 영화제의 시발이 되었다. 하지만 시각장애자들은 함께 보지 못했다.

장애인 영화제 관련 언뜻 생각하기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장애인 문제나 장애인의 삶을 다룬 영화제라 할 것 같은 무리도 많았다. 그러나 이번 영화제에서는 청각장애인을 위해서선 전 영화가 한글자막 처리되었으며 아직 국내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골목가도 도입되었다. 골목가는 귀와 고막이 아닌 청신경을 통해 소리가 전달되기 때문에 놀이장 놀이장 청신경이 살아있는 사람이면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자막보다는 골목가를 통해 소리를 듣는 것을 처음으로 접하며 영화를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수화공부와 장애인들의 문화 접근

서, 앞 안 보이는 사람에게는 화면설명을 해주어서, 그리고 움직임이 불편한 사람들은 부속을 해서 그동안 포기하고 낙담했던 문화의 배를 함께 타게 된 것이다.

영화제는 크게 세 부분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장애인에 관해서나 혹은 장애인 문제를 다룬 공모영화제, 단편영화와 애니메이션, 마지막으로 여러가지 현실적 제약으로 문화를 향유할 수 없었던 장애인들을 위한 극장개봉작이 상영된다. 영화제 상영작들은 장애인 150명에게 설문조사를 하여 개작과 공동제작(USA), 북한 사랑 등 50여편을 선정했다.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장애인들의 신체적인 제약만 보완해주거나 사소한 작은 배려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청각장애인을 위해서선 전 영화가 한글자막 처리되었으며 아직 국내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골목가도 도입되었다. 골목가는 귀와 고막이 아닌 청신경을 통해 소리가 전달되기 때문에 놀이장 놀이장 청신경이 살아있는 사람이면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자막보다는 골목가를 통해 소리를 듣는 것을 처음으로 접하며 영화를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수화공부와 장애인들의 문화 접근

한할 파악 및 개선을 위한 세미나 등의 부대행사도 치루었다. 영화를 관람한 김창원(시각장애자·40)씨는 "배설, 배정설명이 상상력을 도와 이해하는 데 훨씬 쉽고 재밌었다. 앞으로 이런 기회가 많이 있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으면 한다"고 말했다. 영화제행사 조직위원장 한 국농아협회장인 안세준씨는 "영화제를 계기로 장애인들도 영화를 볼 수 있도록 공간들이 곳곳에 형성되고, 장애인 스스로도 영상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문화를 향유하는 소비자가, 나아가 생산자가 되어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우리사회의 장애인은 사색질만 명으로 열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장애인인 줄이다. 그러나 길거리에선 장애인 한 사람 마주치기 힘들다. 콘서트장은 온갖 사람들이 수십 수백만 명이 있지만 그 가운데 장애인이 함께 볼 수 있도록 만든 책 한 권 찾아보기 힘들다.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로 돌아가는 사회로 돌아가는 아이기다 사랑도 있고 권리도 행복도 장애인 이 끼어들 틈이 없다. 영화제에서 그들 얼굴에 피어있는 웃음과 행복을 보았다. 이 웃음들이 끊이지않고 퍼져가길 소망한다.

윤홍은기자 happyend21@hanmail.net

만나보기 - 장애인영화제 프로그래머 문명희씨



문명희 (보고 33학번)

"문화적으로 장애인이 소비받고 있고, 특히 영상분야에서 발전된 장애인들의 욕구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영화제 종사자로서 문화적 기회는 누구에게나 부여되어야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산뜻 참여하게 됐습니다. 장애인영화제 프로그램은 문명희(33학번)씨는 본고 영화와 출신으로 영화계 올림을 만든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학교 졸업 후 지금까지 오랫동안 컴퓨터에서 조감도 생활을 해 온 문씨는 이번 영화제에서 행사 기획, 영화제, 행사진행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 능숙하다. 이번 도에 참여하여 영화제 시작되자 언뜻이나 주위의 호응이 높았었다. 문화부장관까지 장애인에 참석하여 앞으로 많은 지원을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사실 영화제를 처음에 준비할 당시는 어려웠어요. 장애인 전반에 대한 인식도 부족했고, 그래서 예산확보도 어려웠죠"라고 말하는 문씨는 "세계최초 장애인 영화제"라며 갑자기 주위에 찬찬히 주목을 받다보니 솔직히 정신이 없다고 전한다. 영화제 상영작들은 장애인들의 선호도조사 등을 통해 선정했고 배급사나 제작사쪽에서도 영화제의 취지를 듣고 문화적 도움을 주려 순조롭게 진행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장애인에 관해서 장애인 문제를 다룬 공모작에서는 장애인들이 장애인 되어 있어 아쉽다는 얘기가 듣고 전한다. "지금까지 장애인이 직접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들이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내년에는 장애인이 직접 만든 작품들이 담긴 영화가 나왔으면 한다"며 문씨는 현재 장애인에 문화의 생산자로 설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워크숍 등을 구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도 이번 영화제를 준비하며 문명희 씨가 했던 장애인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되었죠. 일반인들, 장애인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이웃으로 인정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도와주는 마음이 절실히 필요해요"라고 전하는 문씨는 영화제 개막식이 시작되는 순간 결심을 맺는 장면을 느꼈다고 한다. "첫번째 행사인 자막방송, 홍보를 비롯하여 막대한 일이 많았어요. 하지만 이 영화제가 앞으로 시각장애인에게 자막방송과 더불어 시각장애인의 사익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 일상적 환경 속에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의사소통유형이 시네마테크 건물 등 구체적인 공간까지 다뤄지고 지속적으로 고민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한다.

윤홍은기자 happyend21@hanmail.net



대인이 와대인에게

용인배우터 자연대 대동여지도

자연대 단체 동아리인 대동여지도는 신천리 구석구석을 온몸으로 답사하는 청년들의 기행문이다. 삶에 대한 건강한 생각으로 나아가는 청년들이 도시의 소비문화적인 문화에서 벗어나 우리 문화의 숨겨진 것을 찾고 역사를 한 자락을 걸어 나가기 위해 인 동아리입니다. 일반적인 기행을 벗어나는 사색담사를 통한 기행과 기행문에 자료를 정리하여 회원들과 함께 공부한 후 기행을 하며, 기행 이후에는 기행에 관련된 출판물과 사료들을 보면서 기행의 의미를 가슴속에 간직해 보는 시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동여지도를 통해 사 우리문화를 사랑하고 사람들과 함께 하는 즐거움을 이 동아리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대동여지도는 역사·지리·조선시대 에 걸친 역사에 대한 우리문화의 기초와 지도입니다. 동아리원들의 대동여지도, 사람 사람의 가치에 과거의 사실을 연구하고 토론하여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고 배운 사실을 바탕으로 역사 유적지를 찾



이정현 (자연·화학 56)

다나와 보고, 듣고, 배우고, 느끼는 역사 기행 동아리인 것입니다. 단순히 역사 기행이라는 것 이상으로 사람 사람을 함께 하고 생각하는 사람과 정이 있는 동아리입니다. 각기 개성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이 동아리 동아리이면서 신천리들의 후배사상, 후배님들의 선배사상이 어느 다 동아리보다 더 남습니다. 요즘 대학생들이 대상으로 하는 국토대장정을 기행에서 기행에서 추구되다나 대학생 스스로 참여공부와 자율성은 아니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아리인 동아리 대동여지도는 때때로 동아리 무리만 있을 뿐 아니라 동아리로서 대학 생활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시작으로 풍부한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현재의 대동여지도의 기행은 노년기 기행을 중심으로 시작하였으며, 월 1회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스스로 준비하고 그 내용을 알차게 꾸려나가는 대동여지도가 될 것입니다.

외대, 해가 지지 않는다 - ⑤ 인도어과



한민문화연구원

한민문화연구원은 1981년 타고르 소아에 대한 이론으로 문을 열었다. 인도 문화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들이 모여 연구하고 토론하는 연구가에 참여할만한 것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한민문화연구원은 인도학을 중심으로 타고르 인도에 관한 것을 많은 지식 자료와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하고 있다. 인도 문화에 대한 연구가에 참여할만한 것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한민문화연구원은 인도학을 중심으로 타고르 인도에 관한 것을 많은 지식 자료와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알리는 역할을 한다. 또한 이곳에는 인도전통 악기인 탈루마와 실링가, 춤을 출 때 쓰는 베레, 향로, 75장의 민화 등이 전시되어 있다. 타고르의 생가와 타고르의 집을 기증해 만들어진 타고르 대학, 집사의 원조 바를, 사탕수수 등지에서 실링가를 만드는 장편, 전민제금의 세력 풍경 등 인도의 다양한 모습들이 담겨있는 인도전통 사진들도 나중에 전시회를 열어도 좋은 반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민문화연구원은 외국인도 환영하고 있으며 일반인도 환영한다. 연구원내에 독서실의 자리에 모든 자료와 사물을 사용한다.

주소: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85
전화: 373-3385
연락처: 오전 9시~오후 6시
고통: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인디아 클럽

인디아 클럽은 1987년부터 유럽까지를 여행하다 1990년에 인도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인도 전역을 떠돌아다니는 정무민족과 만난 민간 문화원이다. 그보다 먼저 한국과 인도 사이의 다양한 문화교류를 하기 위한 모임인 '인도 문화원'을 설립하여 한국에는 인디아 클럽이, 인도 뉴델리에는 코리아 클럽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두국 사이의 소식, 전시회나 공연 등 문화교류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여나가기 위해 인도에 오우나나 문화교류를 하고있다. 11월부터는 매달 둘째주, 넷째주 토요일에 인도 문화원 설립을 준비하여 인도에서 인도에서 꼭 필요한 정보들을 소개하고 있다. 물론 인도 뉴델리에는 코리아 클럽도 한국을 소개하는 다양한 사람들을 불러 나가고 있다. 인디아클럽에는 인도의 장식품 등 수공예품, 장신구, 언어, 문화에 있고 다양한 인도관련 사적, 사적으로 쉽게 구하지 못한 인도 관련 유물(도구)도 있다. 또한 이곳은 인도어는 영어를 겸하고 있다.

주소: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64
선정빌딩 301호
전화: 723-0333
홈페이지: www.india.or.kr
이메일: india@india.or.kr
고통: 지하철 3호선 안국역 1번출구
지하철 8호선, 2호선, 5호선, 8호선

타지마할(TAJ MAHAL)



타지마할은 타지마할과 복록은 향신료를 다량하게 사용하여 매운맛과 강한 향이 특징이다. 인도어로타지마할 뒤따라 '태도'가 떠오른다. 그러나 우리가 캐리라고 부르는 것은 음식의 이름이 아닌 향신료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타지'의 잘못된 발음이다. 인도 음식은 전통 타지마할(타지마할) 호텔을 지나 타지마할 소믈리에가 가진 요리책으로 아주 많은 요리가 만들어지고 있다. 지난 1997년 타지마할 '게스트 레스토랑'으로 시작해 타지마할은 지금에 이르렀다. 두 무릇을 담은 인도식으로 변형되었다. 인도 음식은 대체로 맛보다는 양에 중점을 두며, 인도 요리책이 책이다.

타지마할은 타지마할과 복록은 향신료를 다량하게 사용하여 매운맛과 강한 향이 특징이다. 인도어로타지마할 뒤따라 '태도'가 떠오른다. 그러나 우리가 캐리라고 부르는 것은 음식의 이름이 아닌 향신료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타지'의 잘못된 발음이다. 인도 음식은 전통 타지마할(타지마할) 호텔을 지나 타지마할 소믈리에가 가진 요리책으로 아주 많은 요리가 만들어지고 있다. 지난 1997년 타지마할 '게스트 레스토랑'으로 시작해 타지마할은 지금에 이르렀다. 두 무릇을 담은 인도식으로 변형되었다. 인도 음식은 대체로 맛보다는 양에 중점을 두며, 인도 요리책이 책이다.

먹거리

다. 배배배는 중이처럼 얇으면서도 고소하고 바삭바삭한 빵의 일종. 시로사는 인도식 만두로 속에는 채소가 들어가는 여러가지 채소가 작다. 수프로는 단과 믹스채를 넣었다. 커리는 치킨과 양고기와 만든 커리가 인기다.

순한 맛 커리인 비프 코르마가 1만원, 치킨 코르마가 8,000원, 메론 커리인 비프 코르마는 1만 4,000원, 비프 코르마는 1만원, 아예 마늘은 8,000원, 치킨 1만 6,000원이다.

타지마할은 타지마할과 복록은 향신료를 다량하게 사용하여 매운맛과 강한 향이 특징이다. 인도어로타지마할 뒤따라 '태도'가 떠오른다. 그러나 우리가 캐리라고 부르는 것은 음식의 이름이 아닌 향신료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타지'의 잘못된 발음이다. 인도 음식은 전통 타지마할(타지마할) 호텔을 지나 타지마할 소믈리에가 가진 요리책으로 아주 많은 요리가 만들어지고 있다. 지난 1997년 타지마할 '게스트 레스토랑'으로 시작해 타지마할은 지금에 이르렀다. 두 무릇을 담은 인도식으로 변형되었다. 인도 음식은 대체로 맛보다는 양에 중점을 두며, 인도 요리책이 책이다.

불만만 영화



카미수트라(Kamasutra) 1997년 감독 미라 네이 출연 인디아 비라, 사타타 슈드후리, 나빈 헨드루스

카미수트라는 중국의 위진방 방가, 플란트의 원작을 원본과 함께 세계 3대 성(性)학으로 꼽히는 인도성경. 위진방 방가라는 인도의 문헌, 종교에 속한 영화를 가진 경전이었지만, 현재는 다양한 색채에 대한 성교로써 알려진 위진방 방가 영화 '카미수트라'를 만들어냈다. 인도의 비라(비라)는 10주만 걸린 영화 '카미수트라'는 스텝만 30여명, 전국 100여개의 결혼식에 1천여명, 아예 20만, 수천명의 관객이 몰려왔다. 비라, 비라(비라)는 10주만 걸린 영화 '카미수트라'는 스텝만 30여명, 전국 100여개의 결혼식에 1천여명, 아예 20만, 수천명의 관객이 몰려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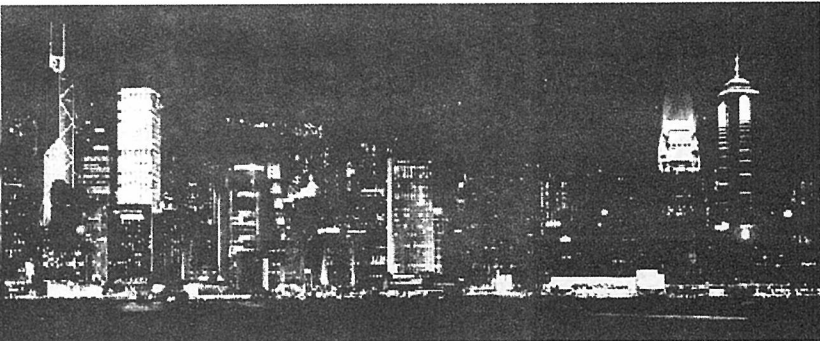
윤홍은 기자

중국자전거 여행단 모집
중국과 00 오직 one-mail@hanmail.net
연락처 : 016-832-3107



지난 여름 방학기간 용인베를터 중국어과 3명(95정환, 임기환, 조진태)의 학생들은 상해에서 홍콩까지 2200km를 자전거로 주파했다. 이에 본보에서는 이들의 중국 자전거 기행을 2차례에 걸쳐 실는다.
지리관계상 기행문의 일부를 편집하여 실는다.

편집자



중국자전거 기행 - 상해에서 홍콩까지 2200km

2200km를 달려온 30일간의 중국여행, 우리가 해냈다!

1. 산을 넘어라

절강성은 성(省)체제가 폐지된 뒤였다.(자어도 우리가 달린 길은...) 즉 광둥과 국도를 달리며 산지를 경유해 가던 그 길이었다. 이제 경지를 달리는 건 별로 힘이 들지 않는다. 거리에 힘도 많이 들었고 오히려 단조로운 느낌마저 든다. 그러나 이제부터 사정은 좀 달라진다. 절강성과 복건성의 접경지부터 복건성 북부지방은 꽤나 높은 산지로 되어있다. 산에서 산으로만 한 중국인이 우리에게 차를 타고도 12시간이나 기다리며 차를 타고 넘어가라고 충고를 해주었던 게 생각난다. 그러나 오르기도 오르던 못 오를 산이 어디 있었겠는가!

절강성의 마지막 도시 衢縣에서 아침 일찍 출발한 우리는 곧 오르막으로 접어들었다. 꽤 높은 산이다. 구불구불한 산길은 정상이 어디쯤인지 분간하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다. 이제 정상이란 건 같아 올라 보면 또 오르막.....

드디어 복건성이다. 이제 여행도 초반을 벗어나 중반에 접어들었다. 또 평지만을 달려온 것과 달리 이제 산지를 헤쳐나가기 한다. 막막하다. 그러나 나는 목표가 있고 중간중간 중국인들의 응원이 있기에 계속해서 전진을 할 것이다. 3시간동안 힘들게 올라온 산을 10분도 채 안되어서 내려왔다. 아마도 전문적으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은 이 맛에 자전거를 타는 것 같다. 어떤 놀이동산의 놀이기구보다 더 짜릿하다. 우리보다 앞서 갔던 차를 한나절 따라잡았다. 내리막길에서는 자전거가 쳐다보아도 빠르다. 물론 위험함도 더 크겠지만..

먹어 배도 채웁든다. 상점주인에게 물어보니 우리가 갈려고 하는 제정은 아직 200km나 더 남았었다. 산길에서의 20km는 결코 만만치 않은 거리이다. 우리 다시 출발을 하였고, 낯이 점점 어두워졌기 때문에 더욱 힘겹게 페달을 밟았다.

제정은 해발 700~800m에 자리잡은 고원도시이다. 중국은 인구매우밀집 지역이 많지 않지 않은 곳에도 많은 사람이 살고 있다. 이곳 제정 역시 별로 사람이 살 것 같지 않은 곳에 꽤 많이 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오기 전에 산변의 안전을 걱정하였고, 더 역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남방으로 오면 오히려 중국사람들의 평균 체적이 점점 작아져서 우리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대형화 우리는 모두 덩치가 큰 편이어서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는다.

중국 시골에서의 한국인지도는 얼마나 될까? 시골로 오면 대충 60%이상만 한국을 안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이 분단상태라든지 대륙의 이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놀라운 것은 안락촌의 인구가 상당하다. 특히

젊은 여성들에게 안락촌의 인구는 대단한 것 같다. 아마도 많이 전에 방영되었던 드라마의 영향이 큰 것 같다.

2. 복건성 이야기

제정에서 푸안으로 가는 길은 거의 내리막길이다. 가끔 가다 산도 나오지만 이때까지 우리가 오른 산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계속되는 내리막을 내려가다 보면 최고 시속 60km까지도 나온다. 앞에서 기한 이의 집 없는 진주가 시작된다. 기한이는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를 잡지 않는다. 물론 제정만 기한이가 더 나갔지만 위험한 행동이다. 몇 번이나 충고를 하였지만 막무가내이다. 어쨌든 바람을 받으며 달리는 기분은 이번 여행에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기분이다. 몇 일쯤 힘겹게 올라온 산을 불과 삼 사십 분만에 내려왔다.

국도를 달리는 보면 농부들이 직접 나와 과일을 파는 것을 볼 수 있다. 대개 그 지방의 특산물을 파는 것이어서 시장에서 사는 것보다는 싸고 양질의 과일을 맛볼 수 있다. 산을 다 내려오니 저 앞에서 몇 사십여 모여 과일을 파는 게 보인다. 가까이 가보니 자두를 팔고 있다. 이 지방에는 자두가 많이 나는 모양이다.

이제 푸조우에 도착하면 우리의 여행은 거의 절반을 한 셈이 된다. 상해에서 출발하여 거의 1000km를 달린 거리이고, 홍콩까지는 약 1200km가 남게 된다.

대도시에서 들어온 교통체계가 복잡하다. 특히 중국에서는 자전거도 엄연히 차로 대접을 받기 때문에 합부로 교통규칙을 위반하면 위험하기도 하고 딱지도 떼일 수 있다. 푸조우에 들어서니 먼 전지 내려가 나온다. 네거리를 지나려면 자전거는 자회도로 가야하는데 그 구조가 좀 복잡하다. 나는 자회도로에서 멈춰서 방향을 한 칸 마시며 여행을 기다리는데 기한이와 진태는 오는데 사진 찍는 친구가 오질 않는다. 아무래도 그냥 자회도로 위를 지나간 것 같다. 자회도 위로 올라가서 기다려도 보이질 않는다. 이런 대형사고이다. 이곳은 대도시이고 더구나 그 친구는 중국말을 할 줄 모른다. 이렇게 큰 도시에서 어떻게 찾든 말인가... 주위를 돌아서 찾아도 보이지 않고 있다. 우리 일단 속도를 잡고 경찰에 신고를 하기로 했다. 아무래도 경찰에 신고하는 편이 가장 좋을 것 같다. 거리에 경찰들이 많고 재경의 형식이 특이해서 아무래도 경찰의 눈에 잘 띌 것이다. 우리 속도를 잡고 110(우리 나라로 치면 120)에 해당하여 전화를 하니 상당히 친절하게 전화를 받는다. 일단 안심이다. 그리고 차분하게 경찰을 이야기 하니 잠시 뒤에 다시 전화를 하라고 한다. 아마도 친구 쪽에서 먼저 신고를 한 것 같다. 잠시 뒤 다시 전화를 해서 우리속도의 위치와 전화번호를 말

해주니 잠시만 기다리란 속소로 을 것이라. 속소 정문에서 잠시 기다리니 그 친구가 중국인 두 사람과 같이 걸어온다. 다행이다. 이렇게 쉽게 찾을 줄은 생각도 못했

3. 광둥성 이야기

후이저(惠愛)까지는 100km정도 남았다. 오전에 40km 정도를 달려오니 오늘도 140km를 달리는 셈이다. 진태가 먼저 앞서 나간다. 뒤를 보니 기한이가 느긋하게 따라오고 있다. 나도 속도를 내고 싶지 않다. 고개를 하나 넘으니 앞지간 진태가 보이질 않는다. 꽤나 속도를 내 달아난 모양이다. 어차피 일찍 도착해도 여관에 들어갈 돈도 없다. 차라리 느긋하게 가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다시 고개를 하나 넘으니 누군가 앞쪽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다. 대문 여흥날 잔파와 긴 바지를 입고 어깨까지 내려오는 긴 머리를 묶고 있는 행색이 상당히 이상하다. 자전거 뒤쪽에 빨간색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가까이 가보니 廣東(광둥)이라고 적혀 있다. 그럴 중국을 들고 있다는 말인데..... 어쨌든 자전거로 여행을 하는 사람을 만나니 반가운 마음이 앞선다. 인사를 건네니 환히 웃으며 인사를 받는다. 이 사람도 뜻밖에도 자전거로 여행하는 우리를 만나서 반가운 모양이다. 여행한지 얼마나 되었나고 물으니 벌써 1년 6개월이나 되었다고 한다.

현. 진태 중국을 한 바퀴 다 돌아나왔다.

고향에 귀주성이 이 사람은 어릴 때의 꿈이 자전거로 중국을 한 바퀴 일주하는 것이라고 한다. 문득 나의 어릴 때의 꿈이 무엇이었는지를 떠올리며 노력해보지만 잘 떠오르지 않는다. 어릴 때의 꿈을 소중히 간직하고, 실현해 옮기는 그의 용기가 부러워진다. 그리고 현실과 타협하며 꿈을 하나씩 잃어 가는 나의 모습이 부끄러워진다. 기한이와 나는 그를 사부(師父)라고 부르기로 하였다. 나이를 보나 여행의 경력으로 보나 그는 우리의 사부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이제 우리 5명이 되어 후이저를 향해 달리고 있다. 나와 진태가 앞에 달리고 있고, 조금 떨어져 사부와 기한이가 따라오고 있다. 주위는 이미 아들이 잘게 쪼개져 있다. 지나가는 차량의 불빛이 의지하여 한참을 달렸다.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보인다. 아마도 자기가 후이저인 것 같다. 시계를 보니 11시이다. 다른 도시가 이 시에 거리에 사람들이 볼바는데 비하여 조용하다. 어느 때쯤이면 조금 쉼 없이 한참에 한참에 쉬는 잠을 잘 생각에 힘이 나겠지만 지금 우리 여정을 잠든 돈까스만 있는 그날 통과한다. 드디어 쉼에 도착을 하였다. 이제 돈도 찾았으니 사부에게 저녁이나 거하게 대접하여

머투커지 우리의 사정을 알아줬는지 자기가 저녁을 한 끼 사줬다고 한다. 고마움을 따들었다. 맛있는 저녁밖에 맥주까지..... 아마도 녀석지 못한 할편에 무리한 것 같다. 내일 한편에서 돈 찾으면 거하게 한 번 대접해줬다. 이제 자는 것만 남았다. 사부는 여행 중에 주로 밖에 자고 있다고 한다. 역시 형그리 정신이 돌보인다. 우리 모든 것을 사부에게 맡기기로 했다. 아무래도 1년 반을 밖에서 잤으면 자리를 보는 안목도 높으리라 생각해서... 사부가 잠시 후 잠자리를 찾아서 돌아왔다. 우리 사부를 데리하는데 이거 영 불만이다. 맑은 공양이라고 하는데 웬지 아닌 것 같다. 커다란 호수 주위에 수풀이 우거져 있고, 그 옆에 용도를 알 수 없는 큰 기둥이 있다. 우리 수풀을 헤쳐 중간으로 들어갔고, 주위는 어두워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다. 땅바닥에 비웃을 깔고 대충 누웠다. 오늘도 140km를 달려왔으니 많이 피곤하다. 밤금 발도 먹어서 배도 부르고, 그런 대로 잔다. 기한이와 진태도 자리를 잡았나보다.

인기척이 들려서 눈을 떠보니 낯이 벌써 밝아있다. 일어나 보니 진태가 벌써 깨어있다. 간밤에 잠을 잘 못 잤는지 피곤한 기색이 역력하다. 나도 몇 번을 자다 깨다해서인지 인물이 수신다. 어쨌든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던 주위를 둘러보니 가만다. 주위가 온통 쓰러져있다. 어쨌밤 장계를 알 수 없던 그 기둥은 알고 보니 쓰러져 조각조각이었다. 쓰러진 조각조각..... 바로 우리가 잔 곳임을 다름 아닌 쓰러진 조각조각이었다. 황당.....

4. 심전에서 홍콩으로

보이는 은행에서 들어가 물을 보충한 진태와 나는 제일 먼저 쉼에 도착하였다. 쉼의 사구역에 들어가기 위해서 는 누구나 검사소를 거쳐야 한다. 검사소는 우리 나라의 통계청과 비슷하게 쉼에 도착하면 쉼에 도착하는 차량이나 사람은 통행증이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다. 진태와 내가 일행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주 먼멀히 통행증이 있는 사람들이 돈을 받고 쉼에 사구역으로 보내주는 사람들 사이에 흥정이 벌어진다. 부르는 값이 꽤 높은 모양인지 흥정이 잘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가끔씩 함께 차를 타고 유유히 사라지는 사람들도 있다. 기다릴 가나 밤을 어 거가며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는 모양이다. 일행과 내가 도착한 다음, 검사소로 가서 여권을 보여주고 우리의 자전거여행이 신기한 듯 엿만 얼굴의 경찰이 이것저것 물어보더니 여행 잘 하리만 인사한다. 사부도 통행증이 있는 그날 통과한다. 드디어 쉼에 도착을 하였다. 이제 돈도 찾았으니 사부에게 저녁이나 거하게 대접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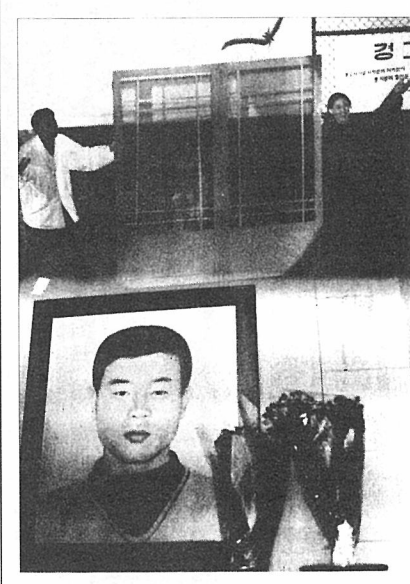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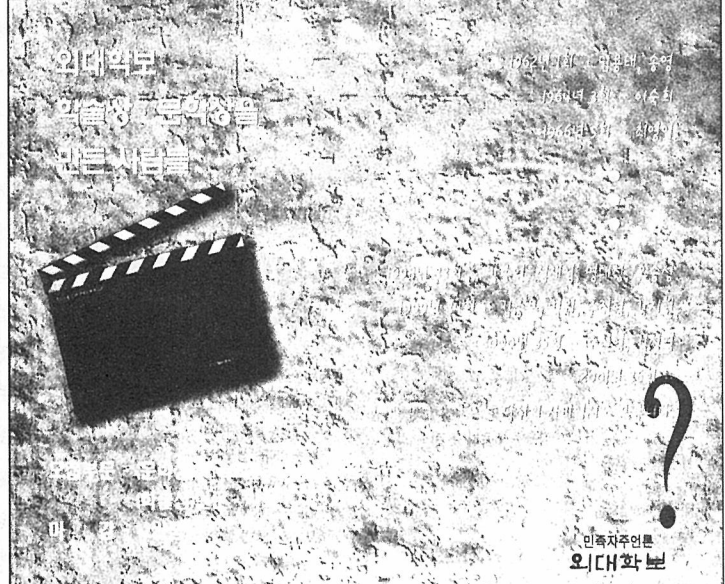
마치 쉼에 도착도 하는 듯 쪽쪽 울러간 고층 빌딩밖에 쉼의 빌딩을 탈레주는 것 같다. 곳곳에 있는 잎이 넓은 식물들도 이국적인 분위기가 뿜어 풍긴다. 도시가 매우 깔끔한 인상을 준다. 우리 지금 「深圳」으로 가고 있다. 쉼을 갈다 온 사람들이부터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터라 기쁘고 싶었던 것이다. 숙소에서 1시간 반을 달려 도착하니 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북적북적하다. 이이 다이가 좋은 것 같다. 세계 각국의 유명한 건축물들을 축소시켜 공원을 조성한 곳인데, 에펠탑부터 피라미드까지 내가 한 번씩 들어본 듯한 건물들은 거의 다 있는 듯 하다.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한국을 테마로 한 건물이 없다는 게 아쉽다.

오늘은 우리의 마지막 홍콩으로 가는 날이다. 일찍 일어나 준비를 한다. 그런데 홍콩 가는 길(?)을 물어보니 대부분 모른다고 한다. 지리적으로만 가깝지 않게 가지 못하니 일반인들은 관심이 없는 모양이다. 할 수 없이 우리가 찾을 수밖에..... 우리 지도를 펼치고 다리가 있는 곳을 찾았다. 아마도 이 다리를 건너면 홍콩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비교적 쉽게 다리를 찾아갔는데 그 곳으로 못 건너간다고 한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이때까지 한 번도 다리가 넘어간 적이 없다고 한다. 아무래도 지하철을 타고 건너가야 될 것 같다. 가차없이 가니 자전거를 분해해서 갈 수가 있다고 한다. 다른 방법이 있는 것 같다.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이 되었다고 하지만 아직은 특별 행정구에서 들어가는데 예는 입국심사와 똑같은 과정을 거친다. 지하철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광둥어가 나온다. 드디어 홍콩에 우리 도착을 했다. 2200km를 달려서 홍콩에 온 것이다. 여행이 드디어 결실을 거두는 순간이다. 홍콩은 국제적인 도시답게 다양한 인종의 관광객들이 눈에 들어온다. 대양에서 느껴지는 자유로움..... 현지 홍콩이 마음에 든다. 아무생각 없이 그냥 걸어간다. 화려한 네온사인, 그리고 영어와 중국어가 뒤섞여 있는 광고판...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내에게는 자유로움으로 다가온다. 늘어난 쇼윈도우를 따라 걸어가니 어느새 지하철 한 구간을 걸어왔나 보다. 침사추이라고 적혀있는 것 같다. 조금 더 가니 어디선가 본듯한 화려한 야경이 나타난다. 홍콩 성이다. 갑자기 성의 외곽이 생각난다. 그리고 우리의 30일간의 여행이 슬라이드처럼 지나간다. 이제 일상으로의 복귀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니 아쉬움이 남는다.

정정환

(동학·중국어 05)



주한미국의 변태적인 성행위를
거부한 이유로 자중에 굴러떨어지 못한 채
숨이 멎어가기 했던 윤금이 누이.
기진 지 않는 노동자들의 피박과 실용을
참지 못해 한집 떠오르는 불꽃으로
터버린 진태원 열사.
그들이 죽음의 고통에 비껴하여
남긴 힘을 부당한 현실에 맞서는 불꽃을
많은 사람들에게 쏘아 주려 했던 것이다.
-지난 10월 28일(금) 윤금이 누이 추모 문화제
와 진태원 30주기 열성 열에서
사진부